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뉴스스

## “살려내라” 참사 1년 앞둔 공항 활주로 선 유족들 절규

“내 새끼 살려내. 살려내라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닷새 앞둔 24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  
“진실의 길” 추모 행사에 참여한 유족들이 참사가 난 활주로에 다다르자 온통 곡소리로 가득 찼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을 하얗게 바라보며 오열했다. 10분여 만에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휘몰아치는 강풍도 유족들 눈가를 타고 흐르는 눈물을 마르게 하지는 못했다.  
“저 둔덕만 없었으면 다 살았다고”, “남편 돌려주라고”고 저마다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다.  
유족들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여객기 참사를 상징하는 하늘색 리본에 하고 싶은 말을 힘겹게 써 내려갔다.  
“보고 싶다. 아들이 사랑해”, “여보 보고

‘안전 기준 위반 시설’ 권익위 판단에 ‘분통’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어도...” 오열·곡소리  
“진상 규명 멈출까 두려워... 관심 가져달라”

싶고 사랑해요 당신 마늘이’ 등 글귀를 적은 리본을 떠나간 가족들이 하늘에서 볼 수 있도록 철창에 단단히 묶었다.  
유족들은 전남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안

전운영기준 위반 시설로 판단한 데 대해 격하게 분노했다.  
아들을 잃은 이경임씨는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저 시설만 아니었으면 모두가 살았잖아. 저게 원인 맞잖아”라고 울분을 토했다.

친인척과 조카 등 가족 5명을 한순간 떠나보낸 유족 조미영씨는 “그동안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둔덕은 전문가들과 해외에서도 많이 나온 주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여객기에 권익위에서 운영기준 위반 시설로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익위 판단을 듣고 미칠 지경이다. 저 콘크리트 벽만 없었어도 9살, 15살 된 어린 조카들을 포함한 179명의 안타까운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유족들은 저마다 “참사 1주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상 규명이 멈춰버릴까 두려워”, “원하는 건 ‘진상 규명’ 뿐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 없이는 진전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한목소리로 관심을 촉구했다.

/기동취재부

### 지면 안내

- ▶ 항공참사 유족 통곡·괴물폭우-공사장 붕괴, 여전한 안전불감증 3면
- ▶ ‘산재와의 전쟁’ 선포, 노란봉투법 통과... 최대 난제 ‘정년연장’ 12면

## 순천대·목포대 통합 반대 우려 확산

통합 찬반투표, 목포대 세 지역 찬성·순천대는 학생들이 ‘반대’ 이병은 순천대총장 “소통부족 반성, 원점서 현실적 대안 모색”

국립순천대·목포대교의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순천대 학생의 통합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그동안 진행되던 대학 통합 및 전남 의대 유치 가 불거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순천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순천대 및 목포대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 대학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목포대는 교원·직원·학생 모두 찬성의 뜻을 보였으나 순천대는 학생들이 반대투표를 던졌다.  
순천대는 대상자 6976명 중 4255명이 참여해 60.99%의 투표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학생은 6328명 중 3658명이 투표했으며 이 중 반수 이상인 2062명(60.68%)이 순천대·목포대 통합에 반대했다. 교원은 312명 중 286명이 참여해 찬성 156표(56.12%), 직원·조교는 336명 중 311명이 투표해 찬성 245표(80.07%)를 기록했다.  
목포대는 교원 87.8%, 직원 81.2%, 학생 67.2%가 통합에 찬성했다.  
예초 양 대학의 투표 과정에서 목포대는 지역별 투표 기준이 두 지역만 찬성해도 통합 찬성으로 간주했으나, 순천대는 세 지역 모두 찬성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순천대의 이 같은 조건은 교수협의회의 ‘세 지역 모두 찬성을 해야 한다’는 요구 따라 이뤄진 것으로 결국 순천대 학생들이 반대하면서 통합 논의도 발목이 잡힌 셈이었다.  
이에 대해 순천대 이병은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구성원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통합 심사 등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구성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해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이 총장은 “지역 의료 환경 개선과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한 미래 확보라는 과제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구성원이 선택한 결과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 결과에 담긴 뜻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원점부터 다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일단 결과가 나온 이상 재투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순천대 관계자는 “통합 찬반 투표 결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승원 기자

## 서창조망대 해넘이·무등산 해맞이 행사 풍성

무등산국립공원 등 광주지역 명소에서 병오년(丙午年) 새해 솟구치는 말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광주시는 지역의 주요 명소에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펼쳐진다고 24일 밝혔다.  
서구 서창포구 인근에 조성된 ‘서창 감성조망대’에서는 역새 뒤로 지는 올해 마지막 해를 볼 수 있다. 2층의 조망대에서는 노을을 뒤로 하고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매년 새해 첫날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대표 해맞이 명소로 임산은 오전 4시부터 가능하다. 좀머리재·장봉재·서석대 등 다양한 등산 코스가 개방되며 광주시는 원효사·증심사 지구

를 중심으로 탐방객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동구 너릿재 체육센터와 서구 금당산 인공폭포 광장, 남구 월산근린공원, 북구 무등산 원효분소 앞, 광산구 어등산 등에서는 해맞이 행사와 떡국 나눔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가장 예쁜 역 축제’가 진행돼 경관 조명을 배경으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아 대형 경관 연출과 포토존이 운영된다. 예술극장 앞 건물 전면은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 2026’ 조명으로 채워지며 아시아문화박물관 로비에는 대형 캐릭터 포토존이 조성됐다. /전광훈 기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해양수산부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